

미국작업치료학회지(AJOT)에 나타난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동향

노동희^{1,2}, 조은주^{2,3}, 감경윤^{4,5*}

¹인제대학교 대학원 융합의과학과, ²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³인제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⁴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⁵인제대학교 향노화헬스케어연구소

Research Trend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Through Analysis of Studies in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Dong-hee Noh^{1,2}, Eun-Ju Jo^{2,3}, Kyung-Yoon Kam^{4,5*}

¹Dept. of Health Science and Technology,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²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hangwon Hospital

³Dept. of Rehabilit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⁴Dept. of Occupational Therapy, Inje University

⁵U-healthcare & Anti-aging Research Center

요약 본 연구는 미국작업치료학회지(AJOT)에 게재된 연구를 바탕으로 작업치료 영역에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실시하였다. 200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직업재활과 관련 있는 35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형태, 연구의 질적 수준, 연구대상자, 연구주제 등을 분류하여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연구형태에서는 총설과 메타분석이 8편(22.9%), 질적 및 자연주의적 연구가 7편(20%), 집단비교 및 상관관계연구, 실험 및 결과연구는 각 4편(11.4%), 사례 연구 및 단일대상연구, 설문조사는 각 3편(8.6%)순으로 나타났으며, 질적 수준은 level V 14편(40.0%), 연구 대상자의 진단명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33.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별 분류 및 결과에서는 직업재활 과정과 관련된 연구 25편(71.4%), 일의 의미 및 가치에 관련된 연구 10편(2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의 작업치료 분야에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주요 연구동향과 대상자, 연구형태, 질적 수준을 알 수 있었고 추후 국내에서도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질적으로도 높고,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아울러 직업재활의 과정과 일의 의미 및 가치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work rehabilitation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based on studies published in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AJOT). Thirty five articles in the AJOT from January, 2000, to June, 2016, were reviewe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classify the articles according to their study methodology, evidence level, study subjects, and so on. When they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study methodology, eight studies (22.9%) were published as review or meta-analyses and 7 studies (20%) as qualitative and naturalistic inquiries. Group comparison/correlational and experimental outcome methods were used in 4 studies (11.4%). 3 studies (8.6%) were conducted using a case study/single-subject design or survey. 14 studies (40.0%) were evidence level V ones and 7 studies (33.3%) dealt with mental illness. When they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tudy subjects, 25 studies (71.4%) were related to the work-rehabilitation process and 10 studies (28.6%) were related to the meaning and value of work.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determine the main research trends, study methodology, study participants, and evidence level related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therapy.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studies in the fiel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which have a high level of evidence and include various kinds of participants, as well as the proces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Keywords : AJOT,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 Trends, Vocational Rehabilitation, Work

*Corresponding Author : Kyung-Yoon Kam(Inje Univ.)

Tel: +82-55-320-3687 email: kamlapa@inje.ac.kr

Received February 9, 2017

Revised (1st March 17, 2017, 2nd April 4, 2017)

Accepted May 12, 2017

Published May 31, 2017

1. 서론

직업이란 경제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통한 자아실현 및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직업상실은 개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데,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빈곤해지고, 사회적 참여가 어려워지며, 우울증과 불안 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된다[1,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직업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

직업재활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성, 복잡성, 종합성, 역동성, 책임성, 전문성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3]. 1955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제 99호 권고안에서 ‘직업재활을 직무지도와 훈련, 취업알선 등의 직업적 서비스를 포함한 연속적이고 협력적인 재활과정의 일부로 장애인에게 적절한 고용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정의하여 직업재활의 원칙과 수행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4].

국내에서의 직업재활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로 개정되면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직업재활은 의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등 다양한 다학제간 접근이 필요하다. 그 중 작업치료사는 작업수행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 참여에 제한을 갖는 사람들이 의미 있는 작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건 의료 전문가로[5], 기존에는 의료적 모델을 기초로 병원치료에 중심을 두었지만 직업재활을 포함한 사회적 모델로 작업치료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6].

작업치료에서 일(work)은 8개의 작업영역 중 하나로 자신에게 맞는 직업선택, 적절한 직장 구하기, 직무습득, 직업수행 논의 등을 세부항목으로 포함하며, 성인이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기 때문에 직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재활은 작업치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7,8]. 또한 작업치료의 역사적·철학적 기반을 살펴보다도 직업평가와 직업복귀에 대한 중재를 오랜 시간동안 지원해왔으며, 클라이언트가 다시 직무수행과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을 핵심적인 직무라 강조하고 있다[9]. 따라

서 손상 후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치료적 중재는 매우 중요하며[10], 다시 일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준까지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직업재활영역에서 작업치료사는 직무분석(job analysis), 작업능력평가(functional capacity evaluation), 작업능력강화(work hardening),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을 활용한 접근 그리고 작업장평가, 작업환경수정과 같은 인간공학(ergonomics)적 접근을 통해 안정된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의 참여를 돕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거나 사업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11].

이처럼 직업재활프로그램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높아져가고 있으며, 직업재활을 통한 직업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업치료사에 의한 평가나 훈련 또는 각 재활분야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oo 등(2006)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평가 도구 사용비율은 1.7~2.6%로 직업재활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 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고, 경험 부족 등으로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12].

또한 대한작업치료학회는 1993년부터 현재 5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였지만 그 중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들은 직업재활과정에서 작업치료의 적용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13], 직업에 복귀한 요통산재근로자에 대한 작업강화프로그램의 효과[14],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15] 등 총 10편미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작업치료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 하나이면서 저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미국작업치료학회지를 중심으로 직업재활분야에서 작업치료사의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작업치료 국외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국내의 직업재활영역에서 작업치료사가 필요한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작업치료학회(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에 게재된 논문 중 직업재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논문 35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http://ajot.aota.org>의 학회지 검색란을 이용하였다. 키워드는 ‘work’, ‘job’, ‘vocational’ 으로 검색하였고, 전문이 제공되지 않는 2편을 제외한 33편의 논문 전문을 확인하였다.

2.2 분석 내용

2.2.1 연구형태 및 동향

연구형태는 Case-Smith와 Powell(2008)의 연구를 근거로 사례연구 및 개별실험연구(case studies and single-subject design), 집단비교 및 상관관계연구(group comparison and correlational), 설문조사(survey), 실험 및 결과연구(experimental and outcomes), 종합 및 메타 분석연구(review and meta-analysis), 질적 및 자연주의적 연구(qualitative and naturalistic inquiry), 기타(other)의 7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16][Table 1]. 각 연구형태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게재된 논문을 5년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2.2 연구의 질적 수준 및 설계

연구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작업치료협회(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가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으로부터 표준화된 근거수준정도를 5단계로 등급 기준을 나눠 사용한 것을 참고하였다[17][Table 2].

2.2.3 연구주제별 분류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 Process 3rd edition 에서 ‘일(work)’의 정의와 직업재활영역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로 강조한 직무분석, 작업 능력평가 및 강화프로그램, 보조공학적인 접근, 인간공학적 접근을 참고하여 일의 의미와 가치, 은퇴, 작업관련손상과, 직업재활평가, 직업재활중재, 보조공학 및 인간공학적 접근 6가지 주제로 분류하였다[11].

2.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연구형태 및 변화경향, 연구의 질적 수준, 연구대상자 진단명, 연구 분야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 항목별 데이터를 코딩한 후 SPSS 20.0의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Definition of Categories for Research Methods and Practice Topics

Category	Definition
Case studies and single-subject design	Case study reports, descriptive reports of one case, and single-subject designs with data.
Group comparison and correlational	Groups were compared on descriptive variables. variables were correlated. Included instrument development studies. always quantitative.
Survey	Written, mailed survey methods, telephone surveys, and standard interview; always presented quantitative data.
Experimental and outcomes	Preexperimental (one group comparing pre- and post-tests, but not single subject), quasi-experimental, true experimental, or randomized clinical trials. outcome studies of interventions with pre and post measures. always comparing intervention effects.
Review and meta-analysis	Systematic reviews, meta-analysis. reviews of research reports.
Qualitative and naturalistic inquiry	Qualitative methods used include ethnography, grounded theory, phenomenology, and narrative. does not include descriptive articles without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ther	Historical research, mixed designs, and other designs that were not defined in article and could not be categorized using codes.

Table 2. Summary of Study Designs of Articles selected for Appraisal

Level of evidence	Study design/methodology of selected articles
I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I	Two groups non randomized studies(e.g., cohort, case-control)
III	One group non randomized studies(e.g., before and after, pretest-posttest)
IV	Descriptive studies that include analysis of outcomes (single-subject designs case series)
V	Case reports and expert opinion, which include narrative literature reviews and consensus statements

Note. From “Evidence-Based Medicine: What It Is and What It Isn’t.” by D. L. Sackett, W. M. Rosenberg, J. A. M. Gray, R. B. Haynes, & W. S. Richardson, British Medical Journal, vol. 312, pp. 71 - 72, 1996.

3. 연구 결과

3.1 연구형태 및 동향

연구형태에 따른 직업재활의 동향을 알아본 결과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가 8편(2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질적 및 자연주의적 연구가 7편(20.0%), 집단비교 및 상관관계연구, 실험 및 결과연구는 각 4편(11.4%), 사례 연구 및 단일대상연구, 설문조사는 각 3편(8.6%)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6편(17.1%)이었다 [Table 3]. 5년 간격으로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04년 12편(34.3%), 2005~2009년 8편(22.9%), 2010~2016년 15편(42.9%)이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질적 및 자연주의적 연구논문은 줄어든 반면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는 급격히 증가하였다[Table 3][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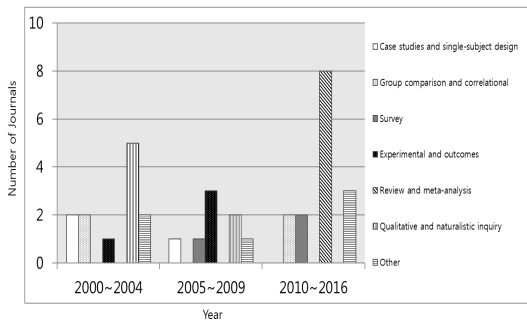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Journals According to Types of Research Design

Table 3. Research Methodology and Trends

Research methodology	2000~2004	2005~2009	2010~2016	Total (%)
Case studies and single-subject design	2	1	0	3 (8.6)
Group comparison and correlational	2	0	2	4 (11.4)
Survey	0	1	2	3 (8.6)
Experimental and outcomes	1	3	0	4 (11.4)
Review and meta-analysis	0	0	8	8 (22.9)
Qualitative and naturalistic inquiry	5	2	0	7 (20.0)
Other	2	1	3	6 (17.1)
Total	12 (34.3)	8 (22.9)	15 (42.9)	35 (100)

Table 4. Evidence Level of Research

Level of evidence	2000~2004	2005~2009	2010~2016	Total
I	0	1	8	9 (25.7)
II	1	2	1	4 (11.4)
III	1	0	0	1 (2.9)
IV	2	1	4	7 (20.0)
V	8	4	2	14 (40.0)
Total	12 (34.3)	8 (22.9)	15 (42.9)	35 (100)

3.2 연구의 질적 수준 분류 기준

35편의 연구의 질적 수준은 level I 9편(25.7%), level II 4편(11.4%), level III 1편(2.9%), level IV 7편(20.0%), level V 14편(40%)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질적 수준이 낮은 level V 논문은 감소된 반면, 질적 수준이 높은 level I 논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Figur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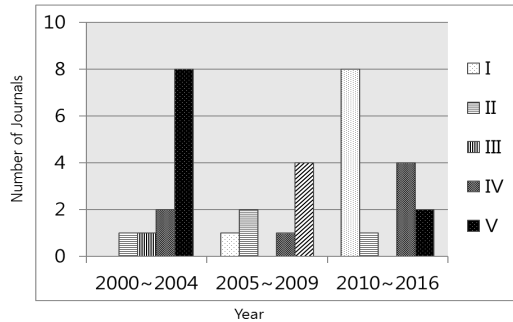


Fig. 2. Evidence Level of Research

3.3 연구대상자의 진단명

총 35편의 논문에서 특정 진단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21편이었고, 연구대상자들의 진단명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및 조현병이 7편(33.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뒤로는 직업관련 손상 및 질병 4편(19.0%), 허리통증, 에이즈,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자폐

가 각 2편(9.5%), 뇌손상, 원위요골골절 각 1편(4.8%)순으로 나타났다[Table 5].

3.4 연구주제별 분류 및 결과

연구주제별 분류 및 결과에서 일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일의 의미 및 가치에 관한 연구 8편(22.9%), 은퇴 관련 2편(5.7%)으로 총 10편(28.6%)이었으며,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는 직업관련 손상 및 질병 5편(14.3%), 직업평가도구 5편(14.3%), 직업재활중재 13편(37.1%), 보조공학 및 인간공학적 접근 2편(5.7%)으로 총 25편(71.4%)이었다[Table 6].

3.5 연구방법에 따른 연구주제 분석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에서 직업관련 손상이 4편(11.4%)으로 가장 많았고 직업재활중재 3편(8.6%), 일의 의미 및 가치에 관한 연구 1편(2.9%)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및 자연주의적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 및 가치에 관한 연구 3편(8.6%), 은퇴, 직업재활중재가 각각 2편(5.7%)으로 나타났다. 집단비교 및 상관관계분석에서는 평가관련연구가 3편(8.6%), 실험 및 결과연구에서는 직업재활중재가 3편(8.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Table 7].

Table 5. Diagnosis of Participants in Studies Targeting Specific Diseases

Diagnosis	Frequency (%)
Low back pain	2 (9.5)
Mental illness, schizophrenia	7 (33.3)
AIDS	2 (9.5)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2 (9.5)
Brain injury	1 (4.8)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4 (19.0)
Distal Radius Fracture	1 (4.8)
Autism	2 (9.5)
Total	21 (100)

Table 6. Classification of Research Subject

		Frequency (%)	
Significance of work	The meaning and value of work	8	(22.9)
	Retirement	2	(5.7)
Work rehabilitation	Work-related injury and illness	5	(14.3)
	Evaluation	5	(14.3)
	Intervention	13	(37.1)
	Assistive technology and ergonomics	2	(5.7)
Total			35 (100)

Table 7. Analysis of Research Methodology According to Research Subject

Methodology	Subject		Work				Work rehabilitation	Total (%)
	The meaning and value of work	Retirement	Work-related injury and illness	Evaluation	Intervention	Assistive technology & Ergonomics		
Case studies and single-subject design					2	1	3 (8.6)	
Group comparison and correlational				3	1		4 (11.4)	
Survey				2	1		3 (8.6)	
Experimental and outcomes					3	1	4 (11.4)	
Review and meta-analysis	1		4		3		8 (22.9)	
Qualitative and naturalistic inquiry	3	2			2		7 (20.0)	
Other	4		1		1		6 (17.1)	
Total (%)	8 (22.9)	2 (5.7)	5 (14.3)	5 (14.3)	13 (37.1)	2 (5.7)	35 (100)	

4. 고찰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미국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 35편을 대상으로 연구형태와 연구 질적 수준을 살펴본 후 연구 주제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직업재활 연구동향 분석으로는 Cho와 Du(2006)가 석·박사 논문 255편, 「직업재활연구」 게재논문 165편, 「장애인고용」 게재논문 373편 총 793편을 대상으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가 있었지만 이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연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8]. 본 연구는 작업치료영역에서의 직업재활에 대한 연구만을 선정하였고, 2000년대 이후의 국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전반적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미국작업치료학회지에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는 총 35편으로 2000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 평균 2.12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시기에 따라서는 2000~2004년 12편, 2005~2009년 8편, 2010~2016년 15편으로 양적인 증가가 있었으며, 이는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반면 국내의 경우 199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 투고된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1990년대 1편에 불과하던 논문이 2000년대 7편에 이르면서 연구 수는 늘어났지만 연 평균 0.25편으로 여전히 국외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추후 작업치료사들이 직업재활에 관련된 보다 많은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가 8편(22.9%), 질적 및 자연주의적 연구가 7편(20.0%)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질적 및 자연주의적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감소하였고,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는 점점 증가하였다. 질적 수준으로 봤을 때 근거수준이 낮은 level V 논문은 2000~2004년 8편에서, 2005~2009년 4편, 2010~2016년 2편으로 점점 감소하였고, 근거수준이 높은 level I 논문은 2005~2009년 1편을 시작으로 2010~2016년 8편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선택한 주제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보들을 평가하고 요약하여 철저한 탐색과정으로 나타내는 체계적 고찰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여 직업재활 관련 연구들이 질적으로 향상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 총 8편 중 4편은 직업관련손상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미국 내 직업재활분

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상의 유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였다. 또한 8편 중 3편은 직업재활중재에 관련된 것으로, 환자 및 장애인의 직업복귀 및 취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의 대한작업치료학회지에서 직업재활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근거 수준이 높은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 등의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인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연구들이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직업재활에 대한 질적 연구 또한 전무하다. 질적 연구는 근거수준은 낮으나 개인의 경험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19]. 따라서 직업과 업무환경의 다양성, 조직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다면, 질적 연구 또한 접근하기 좋은 연구형태라 생각된다.

국내 논문의 직업재활 연구 대상자는 시각장애인, 산재근로자 등에만 그친 것과는 달리 국외에서는 정신과 질환 7편(33.3%), 산재관련 손상과 질병 4편(19.0%), 에이즈 환자 2편(9.5%), 지적 및 발달장애 2편(9.5%), 자폐 2편(9.5%)순으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직업재활의 관심이 가장 높았는데, 2008년에서 2011년까지 4년 동안 미국작업치료학회지에 발표된 총 278편의 연구 중 정신건강과 관련된 논문은 17편(6.12%)으로 같은 시기에 국내 작업치료학회지에서 발표된 정신과 관련 연구 6편에 비해 많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20]. 특히,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동안은 정신건강에 대한 작업치료의 중재 효과, 정신건강과 관련된 작업치료 평가도구 개발, 정신건강 작업치료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정신과 진단환자를 대상으로 작업수행 기초조사연구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미국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총 370편의 논문 중 31편(8.36%)으로 더 증가하였다 [21]. 따라서 정신건강과 정신과 환자에게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정신과환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연구도 많았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 작업치료분야에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직업재활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Jung과 Cha(2009)의 작업치료 기관별 취업현황을 살펴봤을 때 총 2,416명 중 정신병원에 근무

하는 작업치료사는 15명으로, 전체 0.6%에 해당하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6]. 또한 국내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취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수는 11명(0.5%)에 불과하여 작업치료영역에서의 선천적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연구 또한 미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사료된다[6]. 따라서 향후 국내에서도 작업치료사의 역할 확대 및 다학제간의 접근을 통해 산재환자 외에 직업재활이 필요한 다양한 진단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작업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주제별 분류 및 결과에서는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가 25편이었고, 직업재활중재에 대한 연구 13편(37.1%), 직업관련손상, 직업재활평가도구 각 5편(14.3%), 보조공학 및 인간공학적 접근 2편(5.7%)순으로 나타났다. 비록 적은 편수이기는 하나, 미국 내 작업치료학회에서는 손상 후 복귀에만 관심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예방의 차원인 인간공학적인 부분까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산업재해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건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업무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 있다[22]. 국내의 연구 또한 단순히 직업재활훈련이나 평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폭넓은 관점으로 다방면의 연구를 이루어 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일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일의 의미와 가치 8편(22.9%)에서부터 은퇴 2편(5.7%)까지 단순히 일의 의미와 중요성만 본 게 아니라 Domain & Process의 ‘일(work)’의 은퇴(retirement)까지 고려하여 삶의 전반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Ku 등(2013)은 직업재활분야에 종사하는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성공적인 직업재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준비 및 적응훈련, 취업연계, 교육, 연구, 관리(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 정의하였다[15]. 이처럼 국외에서는 직업재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작업치료사들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 국내에는 직업준비 및 적응훈련에 머물러 있다. 추후에는 국내에서도 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작업치료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타 학술지에 게재된 작업치료사가 연구한 직업재활관련 연구들은 제외되어 모든 내용을 일반

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추후에는 미국작업치료학회지 외 여러 학회지 및 학술지의 문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직업재활에 대한 질적 수준이 높은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제시하여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업재활영역에서의 역할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중재내용에 대한 지식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국작업치료학회지를 중심으로 작업치료 영역에서 직업재활에 관련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연구형태는 종설 및 메타분석연구가 8편(22.9%), 질적 수준은 level V가 14편(40.0%)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명은 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7편(33.3%)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별로는 직업재활과정과 관련된 연구 25편(71.4%), 일의 의미와 가치, 은퇴에 대한 연구 10편(2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 내 작업치료분야에서 직업재활관련 연구의 내용과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국내 직업재활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에 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연구, 다양한 진단명과 관련된 연구, 직업재활과정뿐만 아니라 직업복귀 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등 광범위하고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며, 아울러 앞으로 직업재활에서 작업치료사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J. Kim, E. Lee, E. Ha,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in occupationally injured worker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Environmental Medicine, vol. 13, no. 2, pp. 141-151, 2001.
- [2] B. Eun,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of the disabled laborers from industrial accident",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1999.
- [3] W. Kang, W. Na, K. Park, J. Ryu, M. Jung, Introduction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Nanumeuigip Publisher, 2009.
- [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R099-Vocational Rehabilitation (Disabled) Recommendation, 1955, Available From:

- http://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STRUMENT_ID:312437. (accessed Jun., 15, 2016)
- [5]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 Inc. (NBCOT[®]), Executive summary for the practice analysis study: Occupational Therapist Registered, NBCOT[®] 2008 Practice Analysis, 2008.
- [6] M. Jung, Y. Cha, “An analysis on the status and supply-demand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7, no. 4, pp. 113-126, 2009.
- [7]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2nd ed.)”,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2, pp. 625 - 683, 2008. DOI: <https://doi.org/10.5014/ajot.62.6.625>
- [8] J. Snodgrass, “Effective occupational therapy interventions in the rehabilitation of individuals with work-related low back injuries and illnesses: a systematic review”,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5, no. 1, pp. 37-43, 2011. DOI: <https://doi.org/10.5014/ajot.2011.09187>
- [9]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services in facilitating work performance (statemen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54, no. 6, pp. 626-628, 2000. DOI: <https://doi.org/10.5014/ajot.54.6.626>
- [10] J. Lee, G. Kielhofner, “Vocational intervention based on the Model of Human Occupation: a review of evidence”,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7, no. 3, pp. 177-190, 2010. DOI: <https://doi.org/10.3109/11038120903082260>
- [11] S. Hwang, K. Lee, Occupational therapy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Koonja publisher, 2012.
- [12] E. Yoo, M. Jung, S. Park, E. Choi, “Current trends of occupational therapy assessment tool by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4, no. 3, pp. 27-37, 2006.
- [13] H. Kwon, “A study of application on occupational therapy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 no. 1, pp. 40-53, 1993.
- [14] S. Park, H. Kim, “The effect of work-hardening program for workers returning to work with low back pai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6, no. 4, pp. 65-76, 2008.
- [15] I. Ku, S. Hong, D. Kim, T. Hur, S. Jung, H. Kim, H. Yoon, J. Lee, “Job analysis of occupational therapists engaged in the fiel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21, no. 4, pp. 107-122, 2013. DOI: <https://doi.org/10.14519/jksot.2013.21.4.09>
- [16] J. Case-Smith, C. A. Powell, “Concepts in clinical scholarship - Research literature in occupational therapy, 2001 - 2005”,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2, no. 4, pp. 480 - 486, 2008. DOI: <https://doi.org/10.5014/ajot.62.4.480>
- [17] M. Arbesman, D. Lieberman, & V. J. Thomas, “Methodology for the systematic reviews on occupational therapy for individuals with work-related injuries and illnesse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5, no. 1, pp. 10 - 15, 2011. DOI: <https://doi.org/10.5014/ajot.2011.09183>
- [18] S. Cho, K. Du, “Trend analysis : A study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A review of literature from 1991 to 2005 -”,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16, no. 1, pp. 241-264, 2006.
- [19] R. Zemke, F. Clark, Occupational science: The evolving discipline, Davis, 1996.
- [20] S. A. Gutman, “Centennial vision—State of mental health research in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08 - 2011”,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6, pp. e30 - e33, 2012. DOI: <https://doi.org/10.5014/ajot.2012.003913>
- [21] S. A. Gutman, E. I. Raphael-Greenfield, “Centennial vision—Five years of mental health research in th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009 - 2013”,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8, pp. e21 - e36, 2014. DOI: <https://doi.org/10.5014/ajot.2014.010249>
- [22] S. Kumar, “Theories of musculoskeletal injury causation”, Ergonomics, vol. 44, no. 1, pp. 17-47, 2001. DOI: <https://doi.org/10.1080/00140130150203866>

노 동 희(Dong-Hee Noh)

[정회원]



- 2013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작업치료학 석사)
- 2015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융합의과학과 (뇌과학 및 재활신경 과학 박사 수료)
- 2007년 6월 ~ 현재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작업치료사

<관심분야>

직업재활, 수부손상, 신경과학

조 은 주(Eun-ju Jo)

[정회원]



- 2016년 2월 : 인제대학교 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작업치료학 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인제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박사 과정)
- 2012년 3월 ~ 현재 :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작업치료사

<관심분야>

작업치료학, 신경과학

감 경 윤(Kyung-Yoon Kam)

[정회원]



- 1995년 2월 : 서울대학교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 2000년 8월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이학박사 :신경생물학)
- 2001년 12월 ~ 2005년 8월 : 하버드대학교 & Brigham Women's Hospital 연구원
- 2005년 9월 ~ 현재 : 인제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신경과학, 신경가소성